

세르반테스 작품에 나타난 무어인 연구

임 주 인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Lim, Ju-In(2008), El estudio sobre el personaje musulmán en las obras de Cervantes,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 125-145.

En este estudio, intento hacer un análisis sobre el personaje musulmán a través de las obras de Cervantes. Dado que se destaca el reflejo de los inmigrantes norteafricanos en España, es necesario estudiar la personalidad o característica cultural de los moriscos o mudejares aparecida dentro de las obras españolas para entender el influjo islámico desde el punto de vista humanitario. Sin embargo, la propaganda de la Reconquista al enemigo musulmán, le atribuye las supuestas características de falsedad, traición, maldad, perversidad, crueldad, cobardía, y sexualidad. Los estereotipos peyorativos sobre los musulmanes en general y los marroquíes en particular no han preparado a la población española para dar una cálida bienvenida a los inmigrantes procedentes del sur del Estrecho. Así que, aunque los medios de comunicación y las organizaciones progresistas se esfuerzan por denunciar la xenofobia y el racismo, mucha gente en la calle, asocia al marroquí con la suciedad, el ruido y la delincuencia. ¿Es posible quebrantar el estereotipo negativo de los musulmanes como coartada inconsciente para su morofobia? Vale la pena considerar el conflicto religioso o cultural entre los dos pueblos durante el tiempo de convivencia para conseguir integración social de los inmigrantes magrebíes a base de la comprensión mutua. En particular, tras el estudio sobre la historia de cautivo en *Don Quijote de la Mancha*, voy a entender el conflicto religioso y etnológico del Siglo de Oro alrededor del Mediterráneo y echar un vistazo al relativismo cultural de Cervantes.

[inmigrantes magrebíes/ estereotipo/ cautivo cristiano/ relativismo cultural/ morofobia;
마그레브 이민자/스테레오타입/기독교 포로/문화적 상대주의/무슬림 혐오주의]

I. 서론

오늘날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이주해가는 이주민이 늘어가지만, 그들의 사회 적응, 내지는 사회 통합 면에 있어서 중남미인이나 동부 유럽의 루마니아 등에서 이주해온 이들보다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모로코인의 경우는 이민 역사가 40년에 육박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를 비롯하여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살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비율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스페인과의 문화적인 융합도 다른 국가로부터 이주해온 이들에 비해서 더딘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스페인인이 무슬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외국인 혐오증과 종교적인 편견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오는 문화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인문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중에 나오는 ‘포로이야기’와 희곡 작품 『알제리에서의 거래』를 중심으로 당시 무슬림과의 갈등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시각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마그레브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포로 이야기’는 세르반테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레판토 해전에 참가한 세르반테스는 돌아오는 길에 잡혀서 5년간을 알제리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된다. 4번 탈출을 시도하지만 동료의 배반으로 무산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무슬림 사회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돈키호테』에서 포로와 개종기독교인인 아랍 여인의 등장은 『돈키호테』의 앞 뒤 내용과 연관성을 띠지 않으면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포로 이야기’를 통해 세르반테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아야 하

졌다.

1. 레판토 해전의 배경과 세르반테스의 포로생활

망헤르, 튀니지, 알제리에는 15세기 국토수복 전쟁 이후 스페인으로부터 쫓겨난 무어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스페인 선박을 납치해서 그들을 포로로 삼고 지하 감방에 가두거나 노예로 부리게 된다. 안달루시아와 발렌시아 등지에서 쫓겨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무어인들이 지중해 유역에서 벌인 ‘해적’ 행위는 범법자로서의 ‘해적’이 아니라 공식적인 전쟁 선포를 통한 합법적인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고 국왕이나 귀족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Braudel, 1973: 867). 이들은 해적으로 돌변하여 기독교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무자비한 박해를 감행했다. 16세기에 와서 무슬림과 스페인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이태리 등 기독교 국가들이 한데 모여 서로 간에 외교사절의 상호 교환 등 오늘날 국제법에 해당되는 조항들에서 합의하였다(Braudel, 1973: 865-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었고 약탈과 방화, 납치와 박해 등 인권을 유린하는 온갖 범죄가 만연했다. 1571년 일어난 레판토 해전 역시 이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종교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이 해전으로 인해 오스만투르크의 지중해 세력을 축소시키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 레판토 지중해 세력권이 스페인 쪽으로 기울게 된다. 레판토 전쟁이 일어날 즈음, 오스만 제국이 시프러스와 베네치아를 점령하면서 지중해에서 기독교 세력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 교황 피우스(Pius) 5세의 요청으로 ‘성스러운 동맹(Holy League)’을 구성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에 크게 승리하게 된 기독교 진영은 지중해 패권을 다시 잡게 되는 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1575년 레판토 전투에 참여했던 세르반테스는 나폴리에서 바르셀로나 행 갤리선 Sol을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9월 26일, 까딸루냐 앞바다에서 알제리 해적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절름발이’라는 별명을 지닌 달리 마미(Dalí Mamí)의 노예가 된 세르반테스는 알제리

에서 기독교인 포로들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 돈키호테의 ‘포로이야기’에서 작가는 포로의 입을 빌어 자신의 경험을 토로한다.

내가 포로로 도착했을 때, 이 땅(알제리)를 보았지
내 마음도 이 세상처럼 막막했어
너무나 많은 해적들이 땅을 뒤덮고 있더군
난 눈물을 건잡을 수가 없었어(Cervantes, 1979: v. 28-31).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는 갤리선의 노예로 팔리거나 지하 감방에 포로로 잡혀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안토니오 데 소사(Antonio de Sosa)에 의하면 알제리의 주민들 중 반 이상이 포로로 끌려와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이들이라고 전한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기독교도의 피가 흐르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투르크인이 되었다. 이들은 무슬림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갔고 이들의 수는 알제리에 있는 유대인이나 무슬림, 그리고 투르크인들에 비해 더 많았다”(Sosa, 1994: 52). 이렇게 개종한 기독교인을 “새로운 무슬림(New Muslim)”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주로 스페인이나 이태리, 지중해 연안의 섬에서 살던 구기독교인들로, 알제리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살아갔고 종교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이슬람화’되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은 베네치아인 하산 파샤(Hassan Pasha)와 코르시카인 라마 알리(Rama Ali), 그리고 알루후 알리(Aluj Ali)가 있다. 이들은 기독교 포로들을 잡아들여 몸값을 받고 풀어주거나 이들을 노예로 삼아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다. 세르반테스는 공포와 두려움, 배고픔에 시달리는 포로의 삶 『알제리에서의 거래』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이미 허기로 지쳐버리고
이미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피로울 뿐이야
이미 힘은 다 빠져버리고
이미 분노만이 남아 있을 뿐,

가카스로 도망쳐 나왔는데

또 다시 나를 잡아 넘겨주려고 하는구나(Cervantes, 1979: v.
1962-1965).

세르반테스는 이 글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실제 네 번에 걸친 도주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풀려나왔다. 첫 번째 시도는 자신을 도망시키기로 했던 무슬림이 배반하는 바람에 수포로 끝났고 1년 뒤 몇 개월 전에 스페인으로 도망쳐간 그의 형제 로드리고의 도움을 받고자 14명의 포로와 함께 5개월 간 숨어있었지만 오기로 했던 사람(Viana)이 밀고자에 의해 계획이 발각된 것을 알고 몸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도망할 수가 없었다. 두 차례에 걸친 도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지만 세르반테스는 이를 견디어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세르반테스는 무슬림을 시켜서 오란(Orán)으로 가서 코르도바의 공작 돈 마르틴에게 자신과 그의 동료 포로 3명을 알제리로 피신시켜줄 만한 사람을 부탁했다. 마르틴은 사람을 시켜서 세르반테스에게 도주 계획을 상세히 알리는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발각되는 바람에 잡히게 된다. 돈키호테의 ‘포로이야기’에서 ‘사아베드라(Saavedra)’라는 이름의 포로가 등장하는데 이 포로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도주를 시도했던 것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포로이야기를 통해 세르반테스가 포로 생활의 현장을 재현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아베드라(Saavedra)가 갖는 현실성과 허구성

마리아 안토니아 가르세스(María Antonia Garcés)는 세르반테스가 겪은 포로생활을 통해 갖게 된 트라우마, 일명 정신적인 상처를 창작을 통해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Garcés, 2002: 174). 돈키호테의 포로이야기에서도 포로는 여인숙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로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겪은 실상을 숨김없이 드러내놓음으로써 주변인들로부터 위로를 얻게 된

다. 전쟁이나 집단 살상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실 속에 침투하여 현재 속의 자아와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되어 현재를 살아가게 된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실제와는 다른 이상적인 자아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알제리에 도착하여 기독교 포로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본인 역시 이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네 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로 분열되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죽음에 임박해서 느끼는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외부 세계의 공격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방어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현실적인 자아와는 반대로 외부의 압력과 박해를 이겨내고 자신의 신조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영웅적인 자아로 분열되는 자신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버트 제이 리프톤(Robert Jay Lifton)은 실제와는 다른 영웅적인 자아상을 본인과 완전히 다른 인물상으로 보지 않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갖게 되는 이중적인 면으로 보았을 뿐이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영웅적인 자아상을 그려봄으로써 현실로부터의 고통을 잊고 포로 생활을 견디어내도록 하는 내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는 트라우마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아의 분열을 “생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적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했다(Cathy, 1995: 128).

사아베드라는 알제리의 포로들에게 갖은 협박과 박해로 무슬림으로 개종하기를 종용하는 현실에 맞서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 영웅적인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일한 인물이 자신이 겪은 포로 생활에서의 좌절감을 통해 현실적인 자아를 동시에 보여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 땅이 얼마나 사악한 곳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해적들이 득실거리는 땅,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로 인해서
내 얼굴은 벽벽이 되어 있었다(Cervantes, 1979: 174-9).

세르반테스는 ‘사아베드라’라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포로 생활에서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트라우마로 인한 자아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프라이(Frye)는 문학이란 혼돈의 상황에 직면하여 느끼는 창조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였다(Frye, 1976: 30). 문학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드러내고 동시에 기독교 세계와 무슬림 세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세르반테스의 연극 『용감한 스페인인 El gallardo español』이라는 작품에서 돈 페르난도 데 사베드라라는 인물은 다양한 이름과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그가 무슬림처럼 터번을 머리에 감고서 쫓아오는 무슬림들의 수사망을 피해가는 바람에 기독교인들마저 그를 무슬림으로 착각하게 된다. 실제로 세르반테스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외부 사람들과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랍인들과 지적인 교류를 주고 받았고 그가 수차례에 걸쳐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무어인의 도움을 받는 등, 무슬림과의 교류가 빈번했음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슬림 세계, 혹은 무어인이나 개종 무슬림들에 대한 그의 시각은 이후 작품들에 반영된다. 『알제리에서의 거래』에서 사베드라라는 기독교인 포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무슬림으로 개종하고자 하는 아우렐리오(Aurelio)를 붙들고 그를 회유시키려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포로들의 대변자로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아우렐리오의 심적인 고통을 공감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관중들 앞에서 무슬림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개종할 수밖에 없었던 변절자들의 내적 고뇌를 대변해주는 인물이다.

무슬림에 대한 개종의 유혹은 무슬림 여인들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강렬하게 작용하게 된다. 『알제리에서의 거래』에서 주인공 아우렐리오는 자하라(Zahara)를 사랑하게 되면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고 싶은 욕망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려는 유혹에 빠져든다. 당시 알제리에서는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인 포로와 연애를 하게 되면 여인을 태워서 죽이거나, 기독교인 포로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만 했다(Enrique, 2000: 34). 사랑에 빠진 아우렐리오가 종교적인 신념과 육체적인 욕망 사이에서 겪는 고통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슬프고도 처절하다!
 슬프고도 쓰디쓴 노예생활이여!
 고통은 너무나도 길도 기쁨이 짧구나!
 탈출구 없이 사악함이 판치는 이 세상은
 바로 지옥이로고.
 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
 육체가 이미 알아버린 바
 내 영혼은 사랑의 사슬에 매여 버렸다네(Cervantes, 1979: v.
 844-855).

세르반테스 문학에서 그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서 아바에 아르세(Avalle Arce)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일화로 구성되지만 거기에는 일련의 통일성과 의미의 단일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억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만들 때는 개개의 일화는 의미의 다양성을 가지고 광채를 띠게 된다”(Avalle-Arce, 1986: 273)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고이띠솔로는 세르반테스의 ‘포로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포로의 문제는 그의 신념과 두려움, 욕망이 함께 교차되어 있다. 이것은 무질서와 혼란을 새로운 문학적 질서로 바꾼 결정체로서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은 작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실패와 실수를 좀더 업그레이드된 현실로 이상화시키는 능력과 관련 된다”(Goytisolo, 1989: 61)고 했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포로 이야기’나 『알제리에서의 거래』에서는 세르반테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삶과 그 현실 속에서 받은 트라우마의 흔적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기억 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과 충격들이 잊혀지고 들러지기 위해서는 내적인 일체감이나 통일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통일성이나 일체감은 그가 속해있는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대중, 그리고 화자에 의해서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체계이어야 한다(James, 1988: 15).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작품에서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주제 내지는 가치체계는 이교도들의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 순교에 관한 것이고, 이는 반종교개혁의 기치와도 통

한다. 중세 산문의 한 분야를 장식하고 있는 성인열전(hagiography)에서는 주로 성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이교도의 박해와 성인들의 순교가 그것이다. 반종교개혁이 중세 기독교 정신을 계승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중세적 가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인 만큼 문학에 있어서도 순교와 이교도의 박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시대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가치관에서 뿐 아니라, 역사적 현실도 세르반테스 당시와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종교전쟁이다. 중세 스페인의 역사는 800여 년 간에 걸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전쟁의 역사였고 16, 17세기 또한 레판토 전쟁을 큰 축으로 하여 지중해를 중심으로 교황이 중심이 되어 스페인과 기독교 국가들이 무슬림 제국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종교전쟁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지브롤터 해협을 중심으로 알제리나 모로코에 거주하는 무어인들이 기독교도를 포로로 잡아 개종시키거나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러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적질은 16세기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중세에 도 까탈루냐나 안달루시아인들의 북아프리카 침략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rew, 1962: 124). 이처럼 끝없이 계속되던 종교전은 세르반테스가 알제리에서 나오기 두 달 전, 스페인이 투르크 제국과 휴전 협정을 맺게 됨으로써 일단락 지어진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오스만 투르크의 경우, 동방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브로델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이때부터 중세로부터 이어져왔던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반목이 가장 극심했던 지중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Braudel, 1973: 203). 1565년부터 활발해진 지중해 무역은 레판토 해전과 튀니스 해전(1574)으로 인해서 스페인과 터키는 지중해를 세력의 각축장으로 만들었지만 휴전 협정을 맺은 후, 상권이 북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 상인들을 활동하는 대서양으로, 동으로는 홍해로 옮겨가게 된다. 이처럼 지중해에서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자, 북아프리카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나 노예들에 대한 관심마저도 시들해져서 그들의 몸값은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포로들의 몸값은 주로 포로의 가

죽과 종교재단에서 받은 보조금과 현금 등으로 치러졌다. 기독교 포로들의 처참한 삶을 묘사하는 기록적 성격의 텍스트가 이들의 몸값을 현금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보면 당시 포로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교황 헤로니모 그라시안(Gerónimo Gracián)은 1593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신비주의 시인이었던 그는 자신이 잡혀있던 시절의 경험을 “아나 타시오의 순례”란 글로 써서 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심을 베풀어 현금을 하도록 하는 데 일조를 담당했다.

종교적인 이상을 좇아 전투에 참여하고, 포로가 되어서 갖은 박해와 모진 협박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기독교 포로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탈감이었다. 기독교와 아랍의 양대 세력의 각축장에서 살아남은 세르반테스에게 있어 자신이 경험한 현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러한 카오스적인 현실을 당시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체계화시키기엔 현실과 문학 사이의 간극이 컸다. ‘포로 이야기’와 ‘알제리에서의 거래’, 그리고 돈키호테 중에 나오는 ‘리코테(Ricote)에서 간극의 끝은 어떻게 메워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개종 무슬림의 정체성 문제

1) 레콩끼스따 이후, 무어인의 행방

레콩끼스따 이후 스페인은 무슬림과 유대인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종용한다. 그리고 중세 때부터 개종을 거부하고 자신의 종교를 지켜오던 무어인이나 유대인들을 강제로 내어쫓게 된다. 이 무렵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무어인들은 북아프리카 연안으로 도망가, 알제리에서 무슬림 문명을 크게 일으키게 된다. 니콜라스 데 니콜라이(Nicholas de Nicolay)가 묘사하는 당시의 알제리 모습에서 모스크 문명의 중심지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왕실을 둘러싸고 목욕탕과 레스토랑이 갖추어져 있는 귀족들의 집들이 있고 거리는 정리되어 있고 3,000개나 되는 벽난로가 갖추어져 있었다. 도시의 아래쪽에 있는 중앙 광장에는 중심 모스크 사원과 중요 건축물들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고 해안가에는 상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알제리는 그 화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Nicolay, 1989: 32).

알제리에는 기독교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었고 해적들에 의해서 붙잡혀온 이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했다. 이 때 알제리에 잡혀갔던 볼프강(F. Wolfgang)은 풀려난 뒤 해적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림 속의 해적의 모습은 구레나룻을 하고 넓게 주름이 잡혀있는 바지와 터어키식 슬리퍼를 신고 커다란 언월도와 물결무늬 칼로 무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제리는 스페인에서 쫓겨난 무어인들과 원주민 베르베르족, 그리고 터키로부터 온 무슬림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자적인 아랍문화를 이루었고 무슬림으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포로로 잡혀왔다가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이태리, 프랑스, 독일인들까지 합해져서 국제적 도시로 발달해있고 있었다. 돈키호테의 ‘포로 이야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포로수용소의 전경이나 부유한 아랍 상인의 집 등은 세르반테스가 직접 본 바를 언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그가 포로생활을 할 당시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실존 인물들이다.

세르반테스는 ‘소라이다’라는 무슬림 여인과, 그의 아버지인 무슬림 상인, 그리고 소라이다와 포로 사이에서 의사 소통을 맡아준 무어인 등이 모두 실존하는 인물들로 세르반테스의 작품 중에 무슬림 여인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포로 이야기’ 외에도 돈키호테 2부 63장에서 개종 무어인의 딸이 등장하고 『알제리에서의 거래』에서 자하라(Zahara)가 등장한다.

마지막 작품에서 등장한 자하라는 주인공을 무슬림으로 개종하도록 유혹하는 여인이지만 앞의 두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스페인 사회로 편입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모두가 아랍인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떤 기준 하에 서로 다른 정체성을 띠게 된 것일까.

2) 『알제리에서의 거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자하라(Zahara)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태생 무슬림 여인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우렐리오와 사랑에 빠져 그를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고 한다. 그녀는 스페인 서고트 제국의 패망을 다룬 돈 홀리앙 백작의 신화에 등장하는 돈 홀리앙의 딸 라 까바 루미아(La Cava Rumía)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돈 홀리앙 백작의 신화는 7세기 스페인 서고트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신화로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스페인령인 세우따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장군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는 “기독교 제국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기둥을 떠받들고 있던 헤라클루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위의 아랍 제국들의 유럽 침략을 막아내는 교두보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루이스 가르시아 데 발데아베야노(Luis García de Valdeavellano)는 돈 홀리앙이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하고자 했던 우마야드(Umayyad) 왕조시기의 인물로, 비잔틴과 베르베르족을 겨냥해서 북아프리카로 침입해 682년 대서양 연안 땅헤르에 다다른 우크바크(Uqbq)를 견제하고 있었다고 한다. 발데아베야노는 홀리앙의 태생이 베르베르인인지 비잔틴인인지, 혹은 비시고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원주민 고마라(Ghomara) 부족으로 카톨릭을 믿는 베르베르족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랍 역사서에는 그를 이반(Iyan), 혹은 울반(Ulyan)이라고 표기해놓고 있는데 모두 그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집트의 역사가 이븐 압델 하켄(Ibn Abd-el-Hakem)은 홀리앙이 로드리고 왕이 머물던 톨레도 궁궐로 딸을 보내어 교육을 시켰는데 로드리고 왕이 그녀를 강간하여 임신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¹⁾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그녀를 기독교 제국을 멸망시킨 ‘유혹자’의 전형으로 삼고 그녀의 이름을 딴 “루미아의 동굴(La Cava Rumía)”에서 “동굴(la Cava)”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을 유혹하는 사악한 여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게 되었고, 서고트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베르베르 기독교인의 변절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고이띠솔로의 작품 『홀리앙 백작의 변론 Reivindicación de conde Don Julián』에서는 홀리앙에 얽힌 전설을 그대로 따라 변절자 돈 홀리앙 백작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본문 중에 그녀의 딸을 일컫는 부분이 나오는 데 이때의 ‘동굴(La Cava)’은 앞에서 언급한 ‘사악한 유혹자’의 의미 그대로다.

1) Ibn Abd-el-Hakem. 2001. “Medieval Sourcebook: The Islam conquest of Spain.” <http://www.fordham.edu/halsall/source/conquespain.html>.

비록 전설적인 의미이지만 변절자 홀리앙과 유혹자 라 까바의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북아프리카 원주민 베르베르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스페인인의 집단 무의식을 자리잡게 된다(Corrales, 1984: 45). 세르반테스의 희곡 “알제리에서의 거래에 등장하는 자하라(Zahara)의 이미지가 동굴의 이미지와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하라는 순교/배교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아우렐리오에게 개종을 종용하면서 유혹하기 때문이다. 한편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소라이다는 같은 무슬림이면서 자하라와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소라이다의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 당시 개종 무슬림들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포로이야기’: ‘소라이다’의 탈신화성

여인숙에 나타난 그녀의 옷차림은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올라온 듯한 차림이었기에 여인숙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무슬림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포로가 자신의 이름을 ‘소라이다’라고 소개하자, 침묵하고 있는 그녀는 “아니예요, 소라이다가 아니라 마리아, 그래요, 마리아예요”라고 밝히면서 그녀의 외모와 걸맞지 않는 이름에 주위 사람들을 당혹케 한다. “당신은 기독교인이요 아니면 무슬림이요? 왜냐하면 당신의 옷차림과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그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게 하네요”라는 도로페아의 질문에서 소라이다가 기독교/무슬림의 경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레콩끼스파 이후, 스페인에 남아서 기독교도로 개종했던 유대인과 무슬림은 비록 법적으로는 구기독교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과 구기독교인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지어져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 개종 무슬림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종교를 버렸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3세기 스페인 『7부 법전』에서 무슬림의 개종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 개종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가해져 왔던 모든 규제들이 제거되고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유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관직과 명예를 얻을 자격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 기독교 사회의 타자로 존재해왔던 이질적이고 잠재적인 적인 무슬림에 대한 개종의 강박관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위장 개종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개종자들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법적인 일련의 조처들을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 관하여”라는 장에서 유대인에 관한 장과는 달리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에 대한 모욕을 금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개종 무슬림에 대한 구 기독교인들의 모욕과 경멸 또한 상당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악의에 찬 비방과 모욕을 늘어놓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는 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이같은 비판 때문에 무슬림으로 살다 죽는다. 이런 사악한 짓은 범죄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며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들에게 가해진 불명에 때문에 후회하여 그것(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며 그들이 받는 모욕과 비난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마음을 닫는 자들이 더러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영토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른 믿음과 이상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경의와 친절을 표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그들을 망신시키거나 그들에게 나쁜 짓이나 모욕이나 해악을 어떤 식으로든 가하는 것을 금한다. 이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지역의 재판관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또 조상의 전 가계가 기독교인이었던 다른 남녀에게 모욕이 가해졌을 경우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Alfonso X, 2000: 87).

소라이다가 무슬림 여인의 의복을 한 채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앉아 있을 때, 주위에서는 그녀를 무슬림으로 보았던 것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뒤 이들의 외모나 혈육,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 때문에 그들을 기독교인과 다른 타자로 소외시키는 당시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녀가 혈육적으로는 무슬림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어릴 때, 그녀의 보모로부터 아랍어로 “기독교인의 기도 *Zalá cristianesca*”를 배우는 등, 기독교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라이다의 개종이 강제에 의한 것이거나 현실적인 이익에서 비롯된 개종과는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소라이다의 개종을 통해서 7부 법전에 등장하는 개종 무슬림들에 대해서 스페인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나 비방이 근거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라이다가 알제리에서 포로 생활을 할 당시 세르반테스가 만났던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점이 이러한 작가의 시각을 더욱 현실성있게 만들어준다.

세르반테스가 알제리에서 포로생활을 할 무렵, 그는 ‘무라디’라는 무어인을 만나게 된다. 당시 도망하다가 잡힌 포로는 2천 대를 맞도록 되어 있었고 세 번씩이나 도주를 계획했던 세르반테스 역시 예외 없이 하산 파샤(Hasan Pasha)의 명령에 따라 곤장형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하지 무라디가 중간 역할을 잘 하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로도 세르반테스는 하지 무라디와의 교류를 많이 갖게 되었다. 무라디는 본래 알제리에 파견된 터키의 외교사절로서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사용해서 비밀리 스페인 내부 인사와 교류를 하면서 알제리에 잡혀있는 기독교 포로의 본국 송환 등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로 인해서 알제리에 있던 기독교 포로들 사이에서는 그를 “선한 사람(hombre de bien)”이라고 불렀다. 그의 딸은 세르반테스가 알제리에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산 파샤와 1579년에 결혼하게 된다. 무라디의 딸은 알제리에 잡혀온 기독교 포로의 손녀딸로서 무슬림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피도 흐르고 있고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기독교에 대해 영향을 받아왔다. ‘포로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기독교인 포로와 함께 스페인으로 와서 개종하지만 실제 무라디의 딸은 합산 파샤와 결혼하여 무슬림으로 남게 된다. 소라이다가 무라디 딸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알제리와 같은 무슬림 땅에도 소라이다와 같이 기독교인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어떤 식으로든 무슬림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들 북아프리카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무슬림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무는 창

조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라이다의 개명을 통해서 개종 무슬림들의 내면적인 정체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소라이다는 스페인에 온 후로 자신의 이름을 무슬림 이름인 ‘소라이다’에서 ‘마리아’로 바꾸어 내적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세르반테스의 다른 작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기보다 내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 돈키호테에서 알론소 영감에서 돈키호테로 이름이 바뀐 것이나, ‘유리석사’(Lincenciado Vidriera)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토마스(Tomás)에서 ‘석사’(Vidriera)로 바뀐 것 등은 일시적인 인물의 심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외모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로 바뀐 것을 나타낸다. 소라이다는 포로와 사랑에 빠져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포로의 생명을 구해준 여인으로 등장한다. 소라이다는 자신의 보석을 팔아서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와 함께 스페인으로 떠나는데, 그녀가 지불한 몸값은 당시 기독교도 포로들이 지불해야만 했던 비싼 대가였고 세르반테스 자신에게 있어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라이다의 모습은 단순히 화려한 무슬림 여인의 모습을 묘사했다기보다는 포로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희망과 같은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Cervantes, 1984: 208).

자하라가 돈 홀리양 신화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반영하고 있다면 소라이다는 ‘루미아 동굴’이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메타포이자 개종 무슬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III. 결론

이제까지는 하나는 무슬림과 기독교도 사이에 이분법적인 경계를 지워 개인의 차별성을 무시한 채, 집단적인 스테레오타입에 얽매어 있었는데 ‘포로 이야기’에 와서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차별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게 된다. 루비에스(Joan-Pau Rubiés)는 기독교 세계가 차별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신세계의 발견 이후라고 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에서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 세계 사이에서의 차별화로부터라고 주장하는데(Joan-Pau, 1993: 157) '포로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라이다'라는 인물에서 차별화를 찾아볼 수 있다.

루미아 동굴에서 보트를 타고서 항해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독교도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무슬림처럼 옷을 입고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슬림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스페인으로 들어온 뒤로 기독교인들로부터 무슬림이라고 배척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 사이에서도 터키인들을 그들과 구분하여 전자가 다소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터키 무슬림들은 조악하고 난폭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에서 우리는 세르반테스가 포로 생활에서 받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현실에 억눌려서 고통 받는 자아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영웅적인 자아로 분열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포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로와 『알제리에서의 거래』에 나오는 아우렐리오는 세르반테스가 알제리 포로생활에서 겪은 심적인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작가의 분신이자 두 얼굴이다. 아우렐리오의 경우, 무슬림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굶주리고 억압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개종하고픈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포로 이야기'의 경우,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무슬림 여인의 개종까지 이끌어내는 영웅적인 자아상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무라디의 딸이자 기독교 포로의 손녀인 소라이다의 존재를 통해, 알제리 땅에 남아있는 개종 무슬림의 후예들이 겪게 될 종교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무어인의 후예인 소라이다의 실제인물은 무슬림의 아내로 머물게 되지만, 세르반테스의 작품 속에서 소라이다는 기독교도의 피를 이어받은 반쪽 무슬림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다시 스페인으로 자기정체성을 삼고자 한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개종 무슬림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슬림 혐오주의'의 씨앗한 시각이었다. 무슬림/기독교라는 이분법적인 편견은 711년 이후, 고착화된 반

아랍적 풍토와 함께 올바른 자아정체성의 확립에 방해가 되어졌다. ‘되짚어 가며 살기’(Vivir desviviéndose)라는 문구가 잘 드러내고 있듯이 800여 년 간 이미, 스페인의 반쪽 자아가 되어버린 무어인의 존재를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그들에 대한 왜곡된 집단무의식을 갖게 된다면, 자아와 타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확립될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의 올바른 확립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타인 묘사하기 Representing the Other』라는 저서에서 폴 홀리안 스미드(Paul Julian Smith)는 자아 정체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이고 자아와 타아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변화를 추구하면서 발전하고 주체가 강력한 결정자이기는 하지만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아와 관계 맺고 있는 타자에 항상 의존한다고 보았다(Smith, 1992: 24). 기독교 포로와 소라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인 동시에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소라이다는 무슬림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 혈통이 서로 결합되어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무슬림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돈 홀리안 신화 속에 담겨있는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전복시킨다. 세르반테스가 알제리에서 겪은 정신적, 문화적인 충격을 기독교/무슬림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종교적인 박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슬림 땅에도 기독교 포로의 혈통과 그들의 종교성을 이어받고 있는 후예들이 무슬림들과 어우러져 그 사회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슬림/기독교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갖는 부조리함을 고발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 같은 상대주의적 시각이 무슬림 세계를 기독교 세계의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아랍인 혐오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당시 민중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었기에 이런 소지를 불식시키는 전략적 장치로서 무어인 저자를 등장시킨다. 세르반테스는 ‘포로 이야기’ 포함하고 있는 돈키호테 소설 전체의 저자를 그 진실함이라고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무어인 씨데 아메페 베넹헬리(Cide Hamete Benengeli)로 단정 짓고 있다. 무어인 역사가의 글을 스페인어를 알고 있는 아랍인이 번역하고, 그 번역한 것을 다시 ‘거짓부렁을 잘 하는 소설가’가 바

꾸어놓았으니 그 진실함이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세르반테스 자신의 상대주의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16세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스페인으로 찾아드는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은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동유럽이나 중남미의 다른 이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스페인 땅을 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슬림의 전통과 문화를 지킨다는 이유로 문화적인 타자로 남아있다.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느냐 마느냐가 스페인 장래 이주민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중대 사안이다. 동유럽 이주민들 역시 언어적인 이질감 때문에 스페인 사회 속에 쉽게 적응하기는 어렵지만 마그렙 이주민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양호한 상태다. 결국 마그렙 이주민들의 사회 부적응은 정치나 경제, 그리고 교육 정책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뿌리깊이 박혀있는 집단 무의식과 종교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 세기가 지난 오늘날, 스페인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세르반테스의 관점을 되짚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Alfonso X. Scott, Samuel Parsons(trans). 2000. *Las Siete Partidas*, vol.5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Avalle-Arce, Juan Bautista. 1968. "La captura de Cervantes." *Boletín de la Real Academia Española*, 48.
- Braudel, Fernand. 1973,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 New York: Harper and Row.
- Caruth, Cathy. 1975. "An Interview with Robert Jay Lifton."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ervantes, Miguel de. *Trato de Argel*. 2008년 3월 20일 검색. www.cervantesvirtual.com/servlet/SirveObras/2358_6289_873_4038_51265679/index.htm
- _____. 1984. *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 Madrid: Alianza Editorial.
- Childers, William. 2003. "Recordando el futuro: los moriscos cervantinos y la inmigración magrebí actual." *Estas primicias del ingenio: Jóvenes cervantistas en Chicago*. Madrid: Editorial Castaía
- Cohen, Walter. 2008. "Don Quijote and The Intercontinental History of the Novel." 2008년 4월 2일 검색. <http://emc.eserver.org/1-4/cohen.html>
- Cox, Harvey. 2005. "What the Mad Knight Was Seeking." *Havard Divinity Bulletin*, 33(1).
- Eilenberger, Wolfram. 1999. "Nacionalidad cervantina: Una entrevista con Juan Goytisolo." realizada en París, el 4 de octubre de 1998. <http://www.ucm.es/info/especulo/numero11/jgoytiso.html>
- El Saffar, Ruth. 1984. *Beyond Fiction: The Recovery of the Feminine in the Novels of Cervan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rnández, Enrique. 2000. "Los tratos de Argel: obra testimonial, denuncia política y literature terapéutica." *Cervantes: Bulletin of the Cervantes Society of America*, 20(1).
- Garcés, María Antonia. 2002, *Cervantes in Aliens: A Captive's Tale*.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Hess, Andrew. 1962. "The battle of Lepanto and its Place in Mediterranean History." *Past and Present*, 57: 124-15.
- Joan-Pau, Rubies. 1993. "New Worlds and Renaissance Ethnology." *History and*

Anthropology, 6(2-3): 157.

Kragen, Pam. 2007, "Don Quixote's looks at tale from a Muslim perspective." *North County Times*(2007.1.17).

Mancing, Howard. 1981. "Cide Hamete Benengeli vs. Miguel de Cervantes: The Metafictional Dialectic of Don Quijote" *Cervantes: Bulletin of the Cervantes Society of America*, 1:1-2.

Northrop, Fray. 1976. *The Secular Scripture: A Study of the Structure of Romance*. Cambridge: Harvard UP.

Rabinow, Paul. 1977. *Reflections on Fieldwork in Moroc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ieber, Diane E. 1998. "Mapping Identity in the Captive's Tale: Cervantes and Ethnographic Narrative." *Cervantes: Bulletin of the Cervantes Society of America*, 18(1).

성명: 임주인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55-1

E-mail: jlimoh@pufs.ac.kr

논문접수일: 2008년 3월 16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2008년 4월 3일